

ISSUE BRIEFING

2019. 07.03  
Vol. 198

# 2019

# ISSUE BRIEFING

## 연구진

이성재\_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
한국환\_지역개발연구부 전문연구원

반려동물 천만시대,  
Petconomy-Pet Food 육성하자!

## CONTENTS

01 펫코노미에 주목해야 할 시기 .....	03
02 펫코노미-펫 푸드의 최적지, 전북 .....	06
03 펫코노미-펫 푸드 산업육성 방향 .....	09

## 요약

- 핵가족 및 1인 가구 증가,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
-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사료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, 특히 반려동물 전용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투명성, 기능성 등이 강조되는 추세임
- 이에 정부는 '15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, '16년 반려동물사업 육성을 발표함
- 전북은 급변하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최적지로 향후 펫 푸드 산업과 펫코노미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양호함
- 펫 푸드를 생산하는 세계적 브랜드 회사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해 있으며, 대변은행,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,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지역 내 펫 푸드 관련 R&D 기관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음
- 또한,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농촌진흥청, 국립식량과학원, 국립축산과학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펫 푸드와 연계한 R&D 기능 지원이 가능함
-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프라 및 R&D 기관들을 연계해 우선 펫 푸드 생산·가공·유통·R&D 거점을 육성한 후 펫코노미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
- 거점 육성을 위해 김제시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펫 푸드 생산 거점을 강화하고 임실군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공산업 육성 및 물류단지 조성, 순창군과 정읍시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능성 평가 및 실증·산업화 지원, 나아가 혁신도시와 연계한 R&D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함
- 그리고, 지역농가 및 공동체 조직을 활용하여 펫 비즈니스 영역 중 펫 플레이, 펫 리빙 등과 관련된 펫코노미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함

## I. 펫코노미에 주목해야 할 시기

### 1. 또 하나의 가족, 반려동물

#### ◎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,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

- 농림축산식품부의 「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」 결과에 따르면,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율은 23.7%로,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 양육

- 2018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, '10년 17.4%에서 '18년 23.7%로 증가('18년 기준 전복은 19.7%)

#### <반려동물 개념>

- 반려동물이란,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
-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
- 반려동물은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과 마음의 위안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의미 내포

#### ◎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및 양육 가구 확대 전망

-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위로와 위안을 제공하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

- 펫팸족(Pet+Family), 펫코노미(Pet+Economy)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으며, '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', '고양이를 부탁해', '개 밥 주는 남자' 등의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확대

- 2010년에 비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찬성 의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신규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지 않고,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'10년에는 찬성 59.2%, 반대 22.9%, '18년에는 찬성 87.7%, 반대 12.3%로 나타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시사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이 '12년 17.9%에서 '25년 31.3%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

## 2. 미래 블루칩, 반려동물 시장

### ◎ 반려동물 및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

- 핵가족화와 고령화,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구조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점차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 예상
  -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.1%씩 성장하여 '17년 약 2조 3,3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(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7)
- 향후에도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연평균 10%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되어 2023년 4조 6천억 원, 2027년 6조 원 규모의 시장을 기대
  - 국내 1인가구, 부부가구 비중이 각각 '15년에 27.2%, 15.5%에서 '25년 31.9%, 20.7%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



자료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(2017), "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연구", p.79.

[그림]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

### ◎ 간식, 식사대용품 등의 등장으로 펫 푸드시장 확대

- 동물용 사료 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, 국내시장의 70% 이상은 고가의 유기농, 프리미엄사료 등 수입브랜드가 점유<sup>1)</sup>
  - 사업체수는 '11년 549개소에서 '14년 808개소로 증가했으며, 같은 기간 종사자수는 9,156명에서 10,662명으로 증가

1) 농림축산식품부(2016), "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(2016. 12)"

# 반려동물 천만시대, PetConomy-Pet Food 육성하자!

- 수입 개 사료는 '14년 100,697(천달러)에서 '16년 125,292(천달러)으로 증가했으며, 수입 고양이 사료는 같은 기간 32,169(천달러)에서 46,035(천달러)로 증가

• 국내업체는 중저가 제품이거나 비 반려동물 사료를 중심으로 생산·판매중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시장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

-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고성장으로 인해 동원F&B, 하림, 빙그레, KGC인삼공사, 풀무원, 서울우유, 사조산업 등 기존 음식료 제조업체, 콜마앤에이치, 씨티씨바이오 등 제약사, LG생활건강, 이마트 등도 진입 중<sup>2)</sup>

## ◎ 반려동물 전용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투명성, 기능성 등이 강조되는 추세

- 기능성 원료 등이 추가되는 등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나, 기능성 원료가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이에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한 실정
- 반려동물 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 견인 필요

## 3.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

• 정부는 2015년 「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(‘15~’19)」을 발표하고, 2016년 7월 ‘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’에서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을 선정하고, 「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대책」 수립 및 추진

- 생산 및 판매업 관리·감독 강화,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,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,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6)

비전	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동물등록 마리수 : ('15) 979천두 → ('17) 1,200 → ('20) 1,500</li> <li>◆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: ('15) 1.8조원 → ('17) 2.1 → ('20) 3.5</li> <li>◆ 일자리 창출 : ('14) 27천명 → ('17) 32 → ('20) 41</li> </ul>
추진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·복지 수준 제고</li> <li>◆ 관련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</li> <li>◆ 관련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</li> </ul>

[그림]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정책 비전·목표 및 추진전략

2)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, "2018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"

## II. 펫코노미-펫 푸드의 최적지, 전북

### 1. 펫 푸드 생산·가공 인프라 우수

#### ◎ 펫 푸드 생산의 세계적 브랜드 입지

- 펫 푸드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으며, 펫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로얄캐닌(Royal Canin)이 15번째 글로벌 공장을 전북 김제시 지평선 산업단지(부지규모 10㎡)에 입지(2018년 9월 오픈)
  - 로얄캐닌은 1968년 프랑스에 설립되어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펫 브랜드 회사
- 김제시에 입지한 펫 사료 공장은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생산 허브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
  - 한국, 일본, 태국,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판매될 생산제품 공급을 김제에서 준비 중이며, '22년까지 연 12만 톤의 펫 푸드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라인 3기까지 확장할 계획

#### ◎ 국가식품클러스터(FoodPolis) 입지

-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수출 중심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,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(232만㎡)와 국내외 우수기업들이 생산·가공활동 추진 중
- 기업지원시설로 식품품질안전센터, 식품패키징센터, 파일럿플랜트, 식품벤처센터(임대형 공장) 등이 입지하여 펫 푸드 관련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 용이

### 2. 펫 푸드 R&D 기관 집적

#### ◎ 지역 내 펫 푸드 관련 R&D 기관 인프라 양호

- 현 정부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인 대변은행은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인접 부지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, 펫 푸드 R&D 기능 수행 가능
  - 대변은행은 차세대 BT(Bio Technology) 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선진국에서는 '13년부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,

# 반려동물 천만시대, PetConomy-Pet Food 육성하자!

국내에서는 초기 단계로 순창군 대변은행 건립을 통해 시장 선점 및 확대 예정

- 대변은행이 건립되면 마이크로바이옴(microbiome)을 활용해 펫 푸드의 성분 분석, 효능 평가, 시험연구 등 펫 푸드의 다양한 기능성 평가 관련 R&D 기능 수행 가능

-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'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'를 건립하여 미생물 제품화 연구개발과 R&D 기반 산업화 지원 등의 기능 수행

- 국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종합적 육성·지원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, 미생물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배양, 분리·정제, 건조·혼합, 제형화 등을 통해 산업화 지원 역할

- 펫 푸드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(대변은행) 후 소재에 대한 실증 및 산업화 추진(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) 등의 R&D 기능 연계 가능

## ◎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R&D 여건 최고

-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농생명 관련기관 7개소 집적

- 농생명 분야 기관은 농촌진흥청, 국립농업과학원, 국립식량과학원, 국립원예특작과학원, 국립축산과학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농수산대학이며, 농생명 분야의 인적 자원은 3,390명에 이르며 박사급 연구 인력만 800명이 넘는 아시아 최대의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지

\* 세계 최대 농생명 연구기관인 네덜란드 푸드밸리 와게닝겐 대학의 박사급 교수·연구인력 850명과 유사한 수준

- 농생명 분야의 이전기관 중 농촌진흥청, 국립축산과학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펫 푸드와 연계한 R&D 기능 지원 가능

## 3. 반려동물 전·후방 연관산업 육성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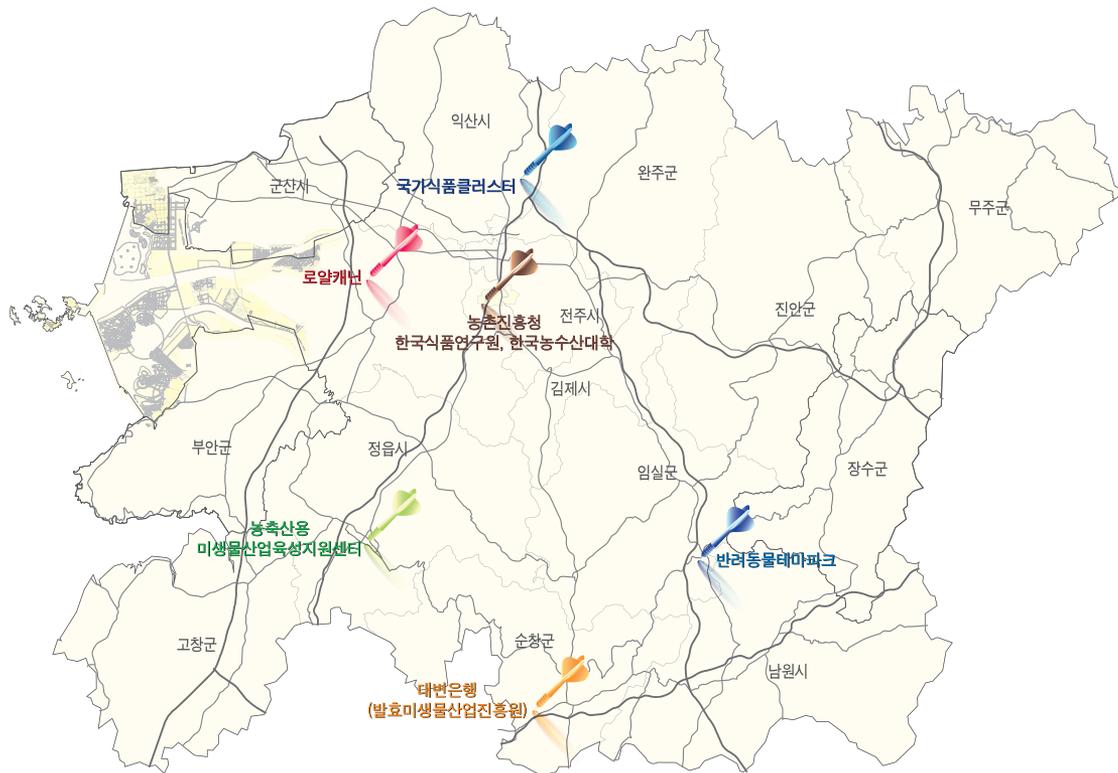
- 김제시에 위치한 글로벌 사료공장은 공장 증설시 김제시 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협력 업체를 유인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대

- 또한, 전북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) 및 전북의 농가들과 연계한 원료생산단지, 1차 가공 등의 전방산업 육성 여건이 양호

\*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('16년) 1,064개 : 사회적기업(인증) 108개, 협동조합 740개, 마을기업 100개, 자활기업 116개

- 임실군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, 반려동물 놀이터,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등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문화 서비스 산업 육성 등 후방산업으로 연계 가능

\*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: 정부지원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공공화장시설로 세부 내용은 공공 동물화장시설 기반조성, 장묘시설, 화장로 설치 등



[그림]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현황

## III. 펫코노미-펫 푸드 산업육성 방향

### 1. 기본 방향

#### ◎ 1단계: 펫 푸드 생산·가공·유통·R&D 거점 조성

- 펫 푸드 생산거점 강화 : 로얄캐닌 사료공장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농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, 반가공 소재 등을 생산·공급하는 협력업체 유치로 생산거점 강화
- 가공산업 육성 : 원료 및 소재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주식, 간식, 건강식 등 펫 푸드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 내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공산업 육성
- 물류단지 조성 : 1차 생산품인 사료와 2차 가공식품을 수도권과 전국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고, 향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국 시장 타깃형으로 확대
- R&D 밸류체인 구축 : 전북에 입지한 식품 관련 R&D 기관들이 기술 공유, 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R&D 가치사슬 형성

#### ◎ 2단계: 펫코노미 기반 조성

- 펫 푸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, 펫코노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펫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타깃 고객 관점에서 펫 비즈니스 육성 필요
- 펫 비즈니스 영역 중 펫 금융, 펫 테크 등 투입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, 규모가 큰 고차 영역의 산업보다는 지역 농가 및 공동체 조직의 진입이 용이한 펫 플레이, 펫 리빙 등의 시장 조성에 주력
  - 펫 플레이 : 펫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레저와 관련된 놀이매트와 장난감, 펫 러닝(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양성), 반려동물 테마파크, 반려동물 교감치유단지 등
  - 펫 리빙 : 펫과 함께하는 생활과 펫의 생애주기 복지를 고려한 비즈니스로 펫 시터(돌봄), 펫 워커(산책, 놀이), 펫 유치원, 수제 펫 의류, 펫 발효식품, 펫 장묘문화, 국립 유공견 명예의 전당 등

## 2. 펫 푸드 거점 조성

### ◎ 원료 및 1차 반가공 소재 생산·판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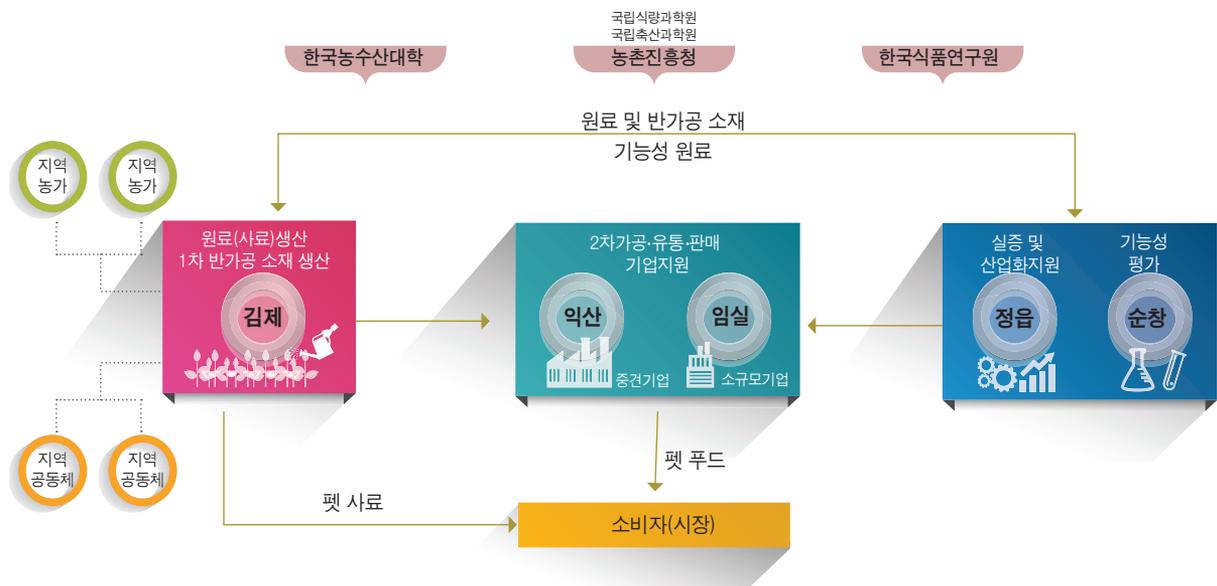
- 글로벌 생산공장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되는 사료와, 1차 반가공 소재를 생산하여 가공단지, 기능성 평가 기관, 실증 및 산업화 지원 시설에 제공

### ◎ 2차 가공·유통·판매 및 기업지원

- 김제에서 공급받은 원료 및 1차 반가공 소재를 2차 가공제품으로 생산하는 거점 조성
  - 임실군 :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관련 중소기업 유치 및 2차 가공품목 생산
  - 익산시 :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2차 가공품목 생산 및 기업 지원

### ◎ 기능성 평가 및 실증·산업화 지원

- 원료 및 1차 반가공 소재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대변은행에서 수행한 후 미생물산업화지원 센터에서 실증 및 산업화를 통해 생산거점과 가공거점에 환류
  - 순창군 : 대변은행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원료 및 소재에 대한 기능성 평가
  - 정읍시 :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실증 및 산업화를 통해 생산·가공 거점에 환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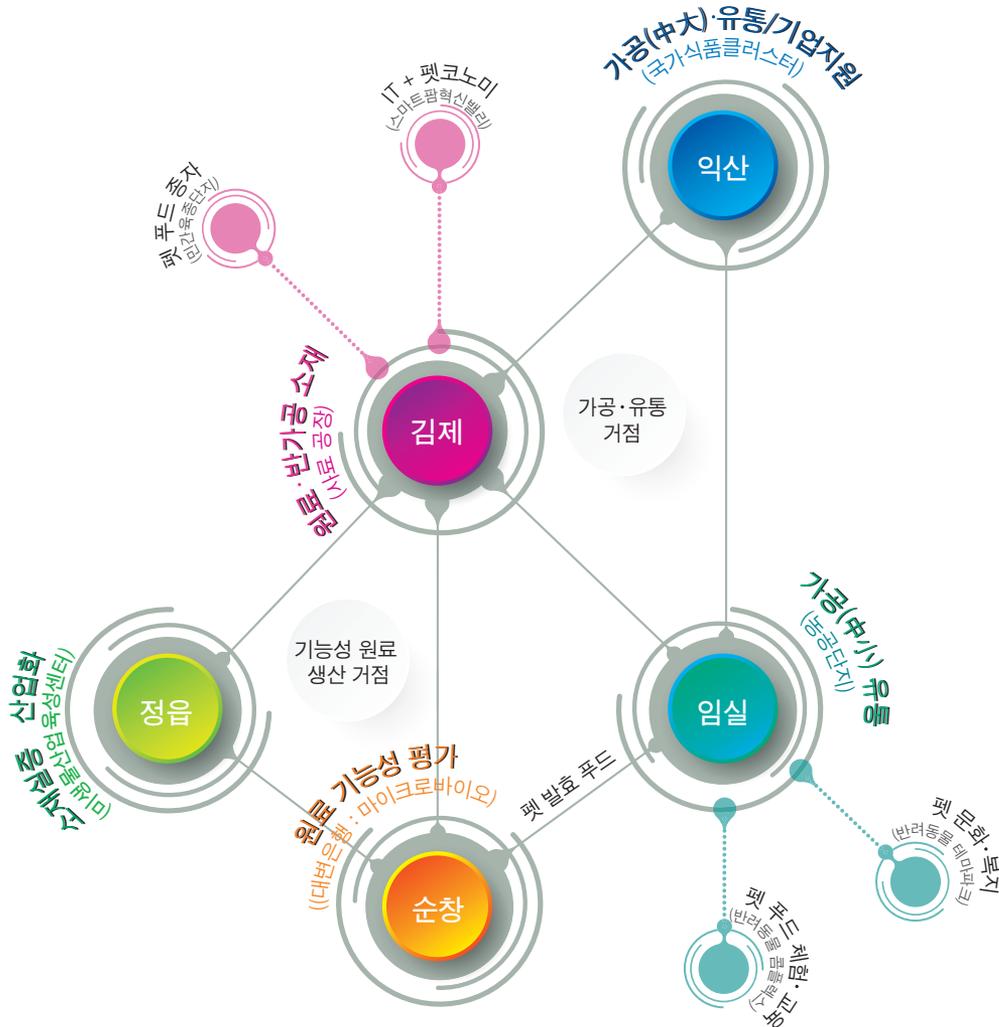


[그림] 펫 푸드 거점 조성(안)

# 반려동물 천만시대 , PetConomy-Pet Food 육성하자 !

## 3. 권역별 특화·연계 방향

- 김제시·정읍시·순창군 특화 권역 : 기능성 원료 생산거점으로 조성
  - 김제시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펫 푸드 종자산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술을 적용한 펫코노미 + IT 시장 창출
  - 기능성 원료 생산의 거점 조성과 시장이 확보되면, 향후 펫 푸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, 생산단지를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
- 김제시·익산시·임실군 연계 권역 : 가공·유통 거점으로 조성
  - 임실군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펫 푸드와 관련된 체험·교육 시장과 반려동물과 연관된 문화, 복지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 창출



[그림] 지역별 특화·연계 방향(안)



**ISSUE BRIEFING**  
2019. 07.03 Vol. 198

**jthink**  
**전북연구원**

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-280-7100 Fax 063-286-9206

발행인\_김선기

발행처\_전북연구원

※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.  
※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([www.jthink.kr](http://www.jthink.kr)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